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 경남 K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희정* · 박정란**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경험을 질적사례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 '각자 동기가 다른 결혼', '나에겐 너무 버거운 아내', '가족이 있어 느끼는 온기',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 '남들은 안 겪는 특별한 결혼생활', '부담스러운 타인의 시선' 등 총 6개의 중심주제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중심의 기존 다문화가족복지에서 부부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부부체계의 지원, 자녀양육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가족체계의 교육 강화, 그리고 친인척을 포함한 확대가족체계의 지원, 마지막으로 결혼생활의 조력자로서 지역사회의 개입과 관심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국제결혼, 한국인 남편, 결혼생활 경험, 질적사례연구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가필한 것임.

* 주저자, 인제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ondeck@hanmail.net

** 교신저자, 인제대, 사회복지학, 교수, jrpark@inje.ac.kr

1. 서론

한국사회는 국제결혼,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유입으로 다문화, 다민족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95만 6781명으로 전체 국민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3.79%이지만(법무부 2022), 코로나 직전 2018년 말 기준으로 보면 236만 7607명으로 4.6%(통계청 2021d)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는 OECD가 인정하는 외국인 비율 5% 초과하는 다문화·다인종국가에 거의 근접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2020년 한국의 다문화가구수 35만 9129가구 중 결혼이민자가 17만 3104가구로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이 약 50%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1a).

그런데 다문화가정 형성의 단초가 되는 국제결혼은 결혼중개업체나 친인척의 소개 등을 통해 교제기간도 거의 없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 나라에 대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결혼 전 준비과정과 의사소통 정도, 다문화 수용태도 여하에 따라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김우현 2010; 김인선·배화옥 2012; 송지현 2009; 장은정 2007).

특히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한국사회에서 선주민으로 살아온 남편의 역할이 주도적일 수밖에 없고 부부갈등시 남편의 대처능력에 따라 결혼의 안정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구향숙 2013).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인 남성은 외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 부부간 의사소통의 문제(이은정 2010)부터 부부간 연령차, 경제적 요인, 결혼에 대한 서로의 기대차이, 의사소통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홍달아기·채옥희 2006). 특히, 결혼에 대한 서로의 기대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되며 아직 남아있는 가부장적 문화는 시부모와의 동거시 의사소통 문제를 넘어 문화차이, 세대차이 등의 가족갈등(정혜영 2008)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다문화가정 연구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이나 그 자녀들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문화와 국적이 다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 남편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해 왔다. 한국인 남편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학대와 인권유린을 하는 사람(윤형숙 2004)이며, 가부장적인 권위와 봉건주의적 향수에 젖어 여성 배우자들을 억압하는 폭군이나 매매혼의 혼주(김문강 2010; 이근무·김진숙 2009)로, 외국인 아내에게 일방적인 적응을 요구하는 사람(윤형숙 2004), 가정에 무책임하고 자녀에게 무심한 아버지(김민경 2009) 등으로 묘사되었다.

이처럼 아내는 국제결혼의 희생자로, 남편은 가해자로 이분화해 편견과 낙인을 부여하는 연구경향을 비판하거나(노충래·김정화 2011) 결혼생활의 중요한 당사자인 남편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공성원 2016; 구향숙 2013; 김문강 2010; 김민경 2009; 김유순 외 2012; 김인선·배화옥 2012; 나정임 2012; 박순자 2013; 이영희 2010; 이영희 2011; 이호준 2010; 채순옥 2013; 최운선·홍기순 2012; 최지영 2013)도 다수 있다. 이들 연구는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의 어려움을 밝힘으로써 사회통념을 넘어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기존 연구와 균형을 이루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경우 대부분 그 주제가 국제결혼의 적응이나 갈등의 대처 전략 등 단편적 측면만을 다루고 있다.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전반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이영희(2011)가 유일하지만 부부체계에 한정함으로써 가족이나 지역사회체계까지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결혼생활 경험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인 남편들에 있어 결혼은 가정을 넘어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는 이중과업(이호준 201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의 당사자이지만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그들의 결혼생활 경험을 부부와 가족, 지역사회를 포함해 다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지금 결혼생활은 어떠하십니까?”란 도입 질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하위질문을 구성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남편의 국제결혼의 동기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가정 남편이 경험한 결혼생활은 어떠한가?(좋은 점, 힘든 점)

셋째, 다문화가정 남편의 결혼생활의 기대는 무엇인가?

2. 문헌고찰

1)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 결혼생활의 실태

국제결혼은 2005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소폭 상승하고 있다. 2020년 국제결혼은 우리나라 총 혼인건수의 7.6%인 1만 6177건이다. 이는 4만 2356건으로 전체 혼인건수의 13.5%를 차지했던 2005년의 최고치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이다(통계청 2021b).

이 같은 감소의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법무부의 결혼이민비자(F-6) 심사기준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즉, 결혼이민자의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과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및 주거공간 확보, 국적·영주권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의 결혼이민자로 초청 제한 등이 그것이다(법무부 2013). 두 번째는 국제결혼에 따른 자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한 일부 국가의 제재조치이다. ‘베트남 결혼이민여성 쩐탄란 투신사건(2008년)’, ‘베트남 여성 뚜엣의 음독사건(2008)’, ‘캄보디아 결혼이민여성 초흐흔 룡엥의 남편 살해사건(2009년)’ 등 결혼이주여성을 둘러싼 사건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등록을 중단(박재규 2013)했기 때문이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의 감소와 함께 이혼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0년 현재 국제결혼의 이혼 비율은 8.2%인데 이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이혼이 3.9%, 귀화자 3%, 외국인 남편이 1.3%를 차지해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이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1a).

2020년 기준 다문화가정의 이혼까지의 결혼생활 기간은 ‘5년 미만’이 가장 많은 33.9%이며 그 다음이 ‘5년 이상~10년 미만’으로 26%, ‘10년 이상~15년 미만’

25% 순이다. 이에 비해 한국인 간의 경우 '20년 이상' 40.1%가 가장 많고, '5년 미만' 18.5%, '5년 이상~10년 미만' 16.5% 순이다(통계청 2021b). 즉, 다문화가정 이혼의 60%가 결혼생활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국인 부부의 평균 결혼기간 16.7년에 비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21c).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생활 갈등이 살인과 가정폭력 등의 양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면 한국인 남편들은 주로 중개업자와의 마찰, 결혼 후 아내의 기출과 도망 등 국제결혼 사기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 캄보디아인 브로커가 한 명의 한국 남성에게 무려 25명의 캄보디아 여성과 맞선을 주선하다 체포(2009년)되기도 하였다. 국제결혼 중개서비스 피해와 관련한 여성가족부(2021b)의 발표에 따르면 '업체가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가 1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업체가 결혼이민비자 발급신청 대행을 부실하게 했다' 6.5%, '업체가 항공권 구매 등 한국 입국수속을 부실하게 대행했다' 6.3%,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4.7%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국제결혼을 했다가 사기나 피해를 당해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연간 천여 건에 달하고 특히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TJB 대전방송 2018.12.26).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0년 주로 강력범죄의 희생이 된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춘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같은 해부터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6)을 수립하여 2022년 현재 3차 계획(2018~2022)이 실행중에 있다. 동 계획의 시행계획은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2) 선행연구 분석

지금까지 국제결혼 관련 연구의 대상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의 아동이었다. 이는 새로운 사회에 편입하려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적응

과정이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상처를 야기할 수 있고(Ben-David and Lavee 1994; 이영희 2011 재인용)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의 언어습득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문제(이지선 2019)가 현실에서 많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질적연구로 수행되었으며 결혼생활 전반을 다룬 이영희(2011)의 연구를 제외하면 주제별로 적응과 부부갈등, 결혼해체 경험, 국제결혼 피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영희(2011)는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들은 국내결혼이 여의치 않았고 배우자들의 강한 기질에 당황하며 마찰과 갈등 속에서 눈치를 보며 한편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나쁜 이미지에 대해 울타리치기로 방어한다고 하였다.

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한국인 남편들에게 결혼적응은 부부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중적인 과업이며(이호준 2010) 결혼초기의 좌절과 포기, 갈등과 후회, 수용과 타협, 적응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적응전략은 성실함과 극성, 긍정성(김유순 외 2012)이었고 유형으로는 성장추구형, 현실수용형, 의욕상실형(이영희 2010)으로 구분되었다.

국제결혼의 부부갈등 경험과정을 최지영(2013)은 ‘기대와 실망’, ‘대립과 혼란’, ‘타협과 조율’, ‘일가를 정립해 나가기’ 등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갈등시 대처 방법으로는 소극적 억압(김민경 2009)과 소극적이며 회피적인 대처방안(공성원 2016)이 선택되었고 국제결혼가정 네트워크 형성, 멘토링, 관련 모임과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최운선·홍기순 2012) 등이 제시되었다.

결혼해체를 경험한 한국 남성들은 아내의 가출과 외도, 아내의 귀국, 아내의 미입국 등으로 상실감과 절망감을 느꼈고 결혼해체에 따른 심리적 고통은 물론 신체적 고통도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채순옥 2013). 또 그 과정은 ‘동상이몽’, ‘분열과 저항’을 거쳐 ‘정리단계’에 이른다(박순자 2013)고 하였다.

한국 남성 배우자의 국제결혼 피해유형에는 자녀를 빼앗김, 의도적인 거짓결혼, 지병을 숨기고 결혼, 불성실한 가정생활, 불성실한 성생활, 남편과 가족무시, 과도한 송금요구, 과도한 부모초청에 대한 요구, 결격사유를 남편에게 돌리기 위한 거짓말 유포 등으로 나타났다(김문강 2010).

3. 연구방법

1) 질적사례연구와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질적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사례연구는 어떻게, 혹은 왜의 문제가 제기될 때 연구자가 상황이나 사건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연구의 초점이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상과 관련된 주요 정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선호되는 방법이다(Yin 2014). 본 연구의 경우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이란 다소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고 결혼생활 경험이란 양적 계측이 어려운 문제를 다루며 부부체계와 가족체계, 그리고 지역사회체계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결혼생활의 경험에 대한 ‘총체적 이해’(Creswell 2013)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소속 대학의 IRB 공식승인을 받았으며 연구의 전 과정에서 참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참여자에게는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면접내용이 녹음된 후 자료화된다는 것과 응답을 거부할 자유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특징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의도적 표본추출을 통해 결혼생활 기간이 5년 이상의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 4명으로 선정하였다. 전술한 대로 다문화가정 이혼의 60%가 결혼생활 10년 이내에 발생(통계청 2021b)한다는 점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탐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혼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는 경상남도 K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소개로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남편이며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 듣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사람들이다.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

사 례	연령	배우자				결혼 기간	형제 순위	결혼 형태	결혼 경로	학력	직업	부모 동거	자녀	비고
		연령	국적	학력	직업									
1	36	35	동북아 시아권	대졸	주부	8	장남	초혼	중매 + 연애	고졸	대기업 생산직	무	3	동생 국제 결혼
2	47	35	동유럽 권	대학 중퇴	영어 강사	11	차남	초혼	연애	전문 대졸	대기업 사무직	무	3	
3	51	31	동남아 시아권	초졸	주부	10	장남	초혼	결혼 중개 업체	전문 대졸	기관 경비원	유	2	
4	56	36	동남아 시아권	고졸	굴공장 생산직	9	차남	재혼	결혼 중개 업체	고졸	대기업 협력업체 생산직	무	3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7년 1월 6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연구참여자와의 1:1 심층면접과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신속히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면접시간과 장소는 연구참여자 1, 2, 4의 경우 본인들이 원하는 저녁시간에 자택에서 진행되었고 연구참여자 3은 야간근무 때문에 낮시간,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면접횟수와 소요 시간은 사례 당 2회였으며 회당에 90분에서 1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질문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여 결혼의 계기, 결혼 후 일상생활, 결혼생활에서 부딪힌 어려움과 좋은 점,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 등을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은 필수된 자료에서 개별 문장을 의미단위로 나누고 유사한 의미단위를 묶어서 주제화시켜나갔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질적 연구자에게 연구과정과 결과를 검토받았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53개의 의미단위에서 사례 간 공통점과 차이점, 이슈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각자 동기가 다른 결혼, 나에겐 너무 버거운 아내, 가족이 있어 느끼는 온기,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 남들은 안 겪는 특별한 결혼생활, 부담스러운 타인의 시선 등 6개의 중심주제와 16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표 2).

표 2. 본 연구의 중심주제와 하위주제

관련 체계	중심주제	하위주제	의미단위	
부부	각자 동기가 다른 결혼	다양한 국제결혼 형태	교회식구의 소개로 만나	
			인터넷으로 만난 아내 국내에서는 찾기 힘든 배우자 아들의 권유로 하게 된 결혼	
	나에겐 너무 버거운 아내	나만 바라보는 아내, 갑갑해	개방적인 문화에 적응 힘들어	아내 나라의 개방된 문화, 적응 힘들어
			아내와의 나이 차이로 서먹하고 불편한 시선	아내와 나이 차이 많이 느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서먹해 외출하기 버거워 아내와 말한데 미안해
			성질대로 하고 의논 없이 물건 사는 아내	나한테만 기대는 부담스러운 아내 잠간의 자유시간도 없어서 피곤해 친구 관계 멀어져 개인적인 시간 보낼 수 없어 갑갑해
가족이 있어 느끼는 온기	결혼은 잘한 선택	말대꾸하는 아내 아내는 지 고집대로 다 하면서 성질나면 참지 못하는 아내 싸움만 하면 아내가 가버릴까봐 불안	대접받는 기분 나보다 나은 아내 덕분에 칭찬 들어 가족이 있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힘이 생겨 외국인 와이프랑 결혼하고 나서 이뉘 좋아져 한국에 적응 빠른 아내, 다문화가정 못 느껴 살려고 고생하는 아내, 늘 마음이 찡해 챙겨주는 아내가 있어 좋아	

가족	가족이 있어 느끼는 온기	가장으로 책임감 생겨	둘도 없는 내 자식 결혼은 족쇄다 가족이 있어 책임감 생겨 육십이 되어서야 인간이 된 나	
		화목한 가정 이루고 싶어	가족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며 추억 남기고 싶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통하는 정보로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워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고 싶어 집안이 화목하려면 내가 변해야	
	혼자 감당해 아 하는 몫	어려운 자녀 양육	지쳐있는 아내, 자녀 양육 어려워 자식 키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부모 딸의 교육 문제	
		감당 안 되는 결혼생활	준비되지 않은 결혼생활의 시작 폭력의 대물림, 이성적으로 제어가 안 돼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와줄 사람 없는 복도 없는 나	
	남들은 안 겪는 특별한 결혼생활	의사소통 어려움이 가족갈등으로	언어습득이 늦은 아내 말이 안 통해 싸움의 시작이 되는	
		한국문화 교육 필요	한국 어머니들처럼 인내하고 희생해야	
		결혼 후 알게 된 아내의 비밀	정확한 정보 없이 시작된 결혼, 살다보니 화가나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아내의 질병	
		처가까지 책임져	처가의 문제까지 내가 책임져 본국 가족의 용돈까지 요구하는 아내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야 가정이 원만해	
	지역 사회	부담스러운 타인의 시선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폭력에 빈곤한 가정 아니고 못 사는 나라 여성과 결혼한 동생 안 봐 ** 사람 안 좋게 보는 동료들에 거리감 느껴 *** 출신국 여성, 중개업체 통한 국제결혼은 능력 없고 문제 있는 사람
			외모에서 느껴지는 차이	외국인 아내 닮아 내 눈에 우월해 보이는 아이들 서양인에게는 관대한 한국 사람들 얼굴에서 표가 안나야 돼

1) 각자 동기가 다른 결혼

연구참여자들의 결혼 동기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했다. 고등학교 시

절 같은 교회 지인을 통해 아내를 소개받고 연애기간을 거쳐 결혼했거나(연구참여자 1), 인터넷 채팅을 통한 경우(연구참여자 2)도 있었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 출신국을 직접 방문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연구참여자 3, 4). 연구참여자 3은 손자보기를 소원하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100번 넘게 맞선을 보았고, 재혼으로 국제결혼한 연구참여자 4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던 상황에서 아들의 권유로 결혼했다고 한다.

“교회에서…(헛기침) 일본 식구님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저랑 나잇대가 비슷한 애가 있어서 서로 좀 만나게 하자. (중략) 소개를 해 줘서 만났어요”(연구참여자 1).

“여러 나라… 다니고 또 펜팔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와이프하고 인터넷 상으로… 알게 됐지”(연구참여자 2).

“100번을 넘게 선을 봤어요. (헛기침) 장남이다 보니까 결혼을 해 갖고 손주라든지 자식을 좀 보는 게 소원이다. (중략) 저는 결혼전문업체를 통해 가지고…”(연구참여자 3).

“아들래미가… 결혼상담소에다가 문의를 해서… (중략) 돈을… 몰릴라고 가니까. (중략) 돈은 못 내주니까 일단은 가보시고…”(연구참여자 4).

2) 나에겐 너무 버거운 아내

(1) 개방적인 문화에 적응 힘들어

연구참여자 3은 결혼 후 2개월 만에 배우자의 출신국을 방문했는데 장인이 담배를 권하여 몹시 당황했었다고 한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또,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하는 문화를 보면서 예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여기에 본인이 보수적이라 아내의 자유로운 스킨십에도 적응이 힘들다고 한다.

“장인이 담배를 줘요. 필 수는 없고… 피워도 된대. (중략) 속으로 좀 싸가지가 없네. 하하하… 집사람이 스킨십을 엄청 시리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 성적 인 면에서 개방적이고 좀…”(연구참여자 3).

(2) 아내와의 나이 차이로 서먹하고 불편한 시선

연구참여자 3은 아내와의 나이 차이로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없고 부부동반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할아버지 오셨네”라며 수군거려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들을까봐 염려되는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 4는 외출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팔짱끼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으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겉으로 봐도 인자 차이가 나잖아요. 친구들이 할아버지 오셨네. 한다고 해요. 남편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중략) 얘기가 들을 때는… 더…”(연구참여자 3).

“팔짱끼는 자체가 나는 이상하거든요. (중략) 참… 아빠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방 구들장 신세만 지고 있으니… 인자 딸하고 집사람한테는 좀 그렇지”(연구참여자 4).

(3) 나만 바라보는 아내, 갑갑해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생활 중 개인적인 시간을 갖거나(연구참여자 1), 외부 활동(연구참여자 2), 친구들과의 만남(연구참여자 3)을 못해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어 갑갑한 생활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아내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자신만을 바라보며 기대는 것이 부담스럽고 갑갑하게 느껴진다고 했다(연구참여자 1, 2, 3). 12시 이전 귀가를 원하는 아내로 인해 “신데렐라”라는 별명이 생기고 친구 관계가 단절되어 “외톨이”가 되었다(연구참여자 2). 집 밖에 있을 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어오거나 귀가 후 냄새를 맡으며 확인할 때는 민망한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연구참여자 3).

“나는 부담스러운 때가 많죠.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또 늦게 오는 것도 많잖아요. (중략)… 저 하나를 보고 계속 있으니까. 줌…”(연구참여자 1).

“좀 갑갑하던 느낌도 들었는데 인자 익숙해지니까. (중략) 신데렐라예요. (중략) (헛기침)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외톨이가 돼서…”(연구참여자 2).

“냄새를 맡아요. 그니까 한 번씩 나가 화가 나니까… 니 개냐?… 제가 조금 민망해요. (중략) 그니까 갑갑한 거지”(연구참여자 3).

(4) 성질대로 하고 의논 없이 물건 사는 아내

연구참여자 3은 대화 시 아내가 중간에 끼어들거나 말대꾸를 하여 더욱 화가 나 부딪히게 된다고 했다. 정년퇴직을 앞둔 연구참여자 4는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가 의논 없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무리한 이사를 등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또 화를 참지 못해 자녀가 보는 데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할 때는 가정이 깨질까봐 불안해 했다.

“집사람이 말대꾸를 막… (중략) 듣고 나서 이야기 하던지. 안 그러면 듣고 나서 나가던지”(연구참여자 3).

“덜러덩 해놔 놓고 휴대폰 바꿨다. (중략) 아파트로 가져해서… 고집은 안 꺾어요. (중략) 틀어지면 인자 보골(화) 못 이기니까 던지고 난리라 (중략) 애 있는 데는 하지말래도 거기 안 통한다니까… (중략) 싸움만 하고나면… 꺾적지건한 기 줌 있지 뭐… 저게 내 몰래 이래 가빠면은… (중략) 나는 또 홀로 재 데꼬… 한번 씩 이리 폭발해 버리고 나면 진짜… 신경 쓰이지”(연구참여자 4).

3) 가족이 있어 느끼는 온기

(1) 결혼은 잘한 선택

연구참여자들에게 결혼은 잘한 선택이고 가족이 있어 따뜻함이 있으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고 했다(연구참여자 2). 챙겨주는 아내가 있어서 좋고(연구참여자 1, 4), 가족이 생겨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함이 있다고 했다(연구참여자 3). 또한 아내의 학력과 외모, 출신국에 따라 자신을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봐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연구참여자 1, 2).

“외롭지도 않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뭐… 저는 아침도 집에서 밥을 먹고 가요. 하하하… (중략) 아유… 저는 ** 가면 대접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집사람… 인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중략) 학교도 학벌도 저보다 낮고… 칭찬을 많이 듣거든요”(연구참여자 1).

“인생 선택 중에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던데… (중략) 잘한 거 같기도 하고… 만족감도 쫘 크고… (중략)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라는 이기…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내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중략) 와이프가 쫘 하는데… 언어를… 쫘 빨리 배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연구참여자 2).

“가족이라 키는 안락함이 있고, 안도감도 있고… (중략) 집에 와가 딱 들어 누우면… (중략) 근데 이제 가족이 있다 보니까…”(연구참여자 3).

“치매를… 똥 기저귀 치운 게 한 3년 정도… (중략) 신경 마이 썼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중략) 회사 갔다 오면… 딱 밥 차려주제 뭐… 인자 아플 때 걱정해 주지 뭐… (중략) 그런 건 잘 하거든요. 하하하”(연구참여자 4).

(2) 가장으로 책임감 생겨

연구참여자는 자식은 세상에 왔다 간 흔적(연구참여자 2)이라며 자식에 대한 애착을 보였으며, 결혼생활로 인해 개인적인 시간과 지출에 제약이 많고 생활패턴이 가족에게 맞춰져 “족쇄”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가족이 있어 책임감도 생기고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했다(연구참여자 3). 또한 젊은 시절 마음대로 살다가 가족이 생기면서 더 일찍 정신 차리고 생활하지 못한 아쉬움과 나이가 많아서 늦둥이 공부라도 시킬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고 했다(연구참여자 4).

“세상에 온 흔적이라 해야 하나… 자식을 통해서 남기고…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 자식을 통해서 남기고… 그기 가족인가…”(연구참여자 2).

“결혼생활이… (5초 침묵) 저 입장에서는 족쇄죠. (중략) 가족중심으로 생활을 패턴을… (중략) 가족이 있다는 거… (중략) 책임감 같은 게 인자 많이 생기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삶이 좀 된다”(연구참여자 3).

“인자 와일드했거든요. (중략) 그 낳고… 장가가고 이러니까… (중략) 사람 다됐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중략) 왜 오십대 정신을 못 차렸나 싶은 생각이 드네예. (중략) 딸래미 인자 참 잘 두었다는 거. 그게 좋은 점이지 뭐 탄 게 있겠습니까. 우리 딸래미한테는 뭐 저거 내가 뭐 못 키워서는 안 되지요”(연구참여자 4).

(3) 화목한 가정 이루고 싶어

모든 연구참여자들의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다(연구참여자 1, 2, 3, 4). 아내가 같은 출신국 사람들과 주고받는 정보로 가정의 깨질까봐 불안해 하면서도(연구참여자 3)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변화해야 하고 앞으로 서로 상의하고 배려하여 지금보다 발전된 삶을 살고 싶다는 기대가 있었다(연구참여자 4).

“가족들하고 여행을 좀 자주 다니고 뭐 그랬으면 좋겠죠”(연구참여자 1).

“핸드폰만 있어도… 연락을 합니다. 자기나라 사람들끼리… (중략) 나도 취직하면은 150만원 벌 거 아니냐 (중략) 내 부모를 좀 잘 살게 할라고 왔는데… (중략) 뭐 얘기들이고 집사람이고 건강하고… 좀 화목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 다 더 인자 뭐 꿈을 꾸다면 로또나 한 개나 걸렸으면 좋겠다. 하하하”(연구참여자 3).

“인자 상의를 해 가면서 인자 쪼매씩 뭐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발전된 삶을 살아야지요”(연구참여자 4).

4)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

(1) 어려운 자녀양육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드러냈다(연구참여자 1, 2, 4). 연구참여자 1은 아내가 세 명의 자녀양육에 지쳐 있는 상태이고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했고 연구참여자 2는 자녀양육 방법을 부모가 배워야 한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밥 먹으라고 하면, 애들이 엄마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전혀… 전혀 변화하는 게 없으니까 하하하…”(연구참여자 1).

“아버지 없이 크다 보니까…아버지 상을 몰라요. (중략) 엄마도…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중략) 쫓 뭐래야 되노… 방법에 대해…”(연구참여자 2).

“인자 우리 딸래미… 인자 뭐 교육거튼 거라든지…”(연구참여자 4).

(2) 감당 안 되는 결혼생활

연구참여자들의 결혼생활은 어려움의 연속이고 그들은 이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부모의 기대로 시작된 결혼이라 자녀와 가정에 애착이 덜 했고(연구참여자 1), 아버지로부터 받은 체벌이 대물림되어 아내와 자녀에게 신체폭력, 언어폭력을 행사했다(연구참여자 3). 또 3교대 근무에 부모님 병원진료, 농사일, 자녀들 학교 알림장 챙기기까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버거운 삶을 살고 있고(연구참여자 3), 월가족도, 다른 사회적인 지원도 없어서(연구참여자 4) 많은 어려움을 홀로 이겨내고 있다.

“이게 애착심이... (중략) 저희도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많은 좀 힘든 것도 많이 있었어요. (중략) 어렸기 때문에... 인제 부모님이... 기대도 많이 하셨고... (중략) 그래서 끌고 온 부분도 있지요”(연구참여자 1).

“애들한테 매를 댁니다. (중략) 어릴 때 아버님한테 체벌을 많이 받고... 직장에, 농사 일, 병원 일이라든지... 학교, 유치원 일이라든지. (중략)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니까...”(연구참여자 3).

“형님 장가보낼 적에 엄마가... 내 통장에서 다 빼가... (중략) 아내... 못된 사람이요. 아들래미 놓고요. 뻘... 하계 보는데 살림 차리고 있어요. (중략) 아들래미도... 안 보거든요. 누군가 해 줄 사람이 없어요”(연구참여자 4).

5) 남들은 안 겪는 특별한 결혼생활

(1) 의사소통 어려움이 가족갈등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가족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연구참여자 1, 3, 4). 이 어려움이 부모세대까지 이어져 가족갈등이 있을 때마다 아내의 노력하지 않는 태도에 힘들어 했다(연구참여자 3).

“음... 그때는 좀 힘들었거든요... 예... 서로 인제 말도 안 통하고... 이래하니까, 좀... 힘들죠”(연구참여자 1).

“인자 엄마가 시장에 갔다 왔다든지, 뭐 늦게 들어와 갖고 했는가 싶어서 보면은 안 해놨거든. (중략) 엄마는 엄마대로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연구참여자 3).

“말, 언어 자체도 모르고... 그래서 싸움이 인자 시발이 되는데...”(연구참여자 4).

(2) 한국문화 교육 필요

연구참여자 3은 아내가 어머니처럼 인내하고 희생하는 태도를 배움으로써 가족의 갈등을 줄이고 가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어머니 세대 같은 그런 정서를 먼저 깔아주고 남편을 도와서 어떻게 자식을 키우면서 좀... 그 인내하고 그런 거를 먼저 이리 가르쳐주고...”(연구참여자 3).

(3) 결혼 후 알게 된 아내의 비밀

결혼 전 몰랐던 아내의 질병을 알게 된 연구참여자(연구참여자 3, 4)는 병원진료비 부담에 화가 난다고 했고 국제결혼을 “사기결혼” 이라고 했다. 하지만 결혼은 본인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연구참여자 3).

“치아는 안 좋더라고... 한국에서 18개 해 넣었어요. (중략) 그게 사기결혼이예요.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연구참여자 3).

“귀 수술을 행제가 한 일년 그리 되거든요. (중략) 처음엔 몰랐지요. 살다보니 인자 갑상선도... 또 임플란트 해야 되고... 돈 들어갈 때도 많고...”(연구참여자 4).

(4) 처가까지 책임져

연구참여자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처가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연구참여자 3, 4). 처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아내를 서운하게 하면 결혼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연구참여자 3) 신뢰가 부족한 결혼생활의 단면을 토로했다.

“장인 병원비를 갖다가 거의 뭐 저가 한 8년 동안 계속… (중략) 문제가 있어 갖고… 또 내가 집을 사 주고… (중략) 안 도와줄 때는 또 서운한 문제가 생기고… (중략) 내 부모를 좀… 잘 살게 할라고 왔는데… (중략) 베트남이랑 사정이… 똑 같다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보는 거죠”(연구참여자 3).

“영상편지… 본다 아입니까. 저 고모고 할머니고 할아버지도 있거든요… 돈 좀 부치라는 이야기 아입니까(기침)”(연구참여자 4).

6) 부담스러운 타인의 시선

(1) “우리는 다문화가정이 아닙니다”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연구참여자 1은 “우리는 다문화가정이 아닙니다”라며 다문화가정은 가정폭력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고 본인은 동남아시아 출신국 여성과 결혼한 “못난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연구참여자 2도 베트남, 중국, 태국, 필리핀 등의 출신국 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폄하된다고 했다. 또 연구참여자 1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동료들이 아내 나라 사람들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다고 한다.

“다문화가정이나 이렇게 보면 너무 좀 힘들게 사는 가정들도 많고… (중략) 제 동생이 이제 ○○○ 그… 동생하고는 얘기 안 한지가 4년, 5년 돼요. ○○○ 사

람 만난다는 게… 좀 못 사는 나라고… 니가 뭐가 못나 가지고… (중략) 사회생활 하다보면… ○○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뭐 그런 거 때문에 약간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지요”(연구참여자 1).

“베트남, 중국, 필리핀, 태국 이쪽… (중략) 결혼중매업체를 통해서… (중략) 내역시도 그런 사람들을… (중략)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좀 취급받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끼고…”(연구참여자 2).

(2) 외모에서 느껴지는 차이

연구참여자 2는 자녀의 외모 때문에 외국사람과 결혼을 선택했다고 했다.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으며 가정에 충실해질 정도로 만족감이 컸다고 했다. 반대로 연구참여자 3은 외모 때문에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것이 염려되어 한국 사람과 비슷한 외모의 출신국 여성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 딱 태어나고 나서는 와… (중략) 새벽에 한 대 여섯 번은 가서 보고… (중략) 가정에 좀 충실해진 것 같기는 해요. (중략)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쪼끔… 서양 쪽으로 생긴 사람들한테 쪼끔 관대한 게… 솔직히… 약간… 어디서 왔느냐도 뭐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연구참여자 2).

“자식이요. 생김새죠. 피부색… 너무 표가 나면은… 왕따 당하고…”(연구참여자 3).

5.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결혼생활 경험을 한국인 남편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6개의 중심주제와 1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체

계별로 정리하면 먼저 부부체계에서 '각자 동기가 다른 결혼', '나에겐 너무 버거운 아내', 가족체계에서 '가족이 있어 느끼는 온기',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몫', '남들은 안 겪는 특별한 결혼생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체계에서 '부담스러운 타인의 시선'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사례 간 공통점은 '가족을 통해 온기'를 느꼈으며 배우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버거워했고 배우자 출신국 문화에 대해 낮설어했다. 또 '처가까지 떠안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혼자 고군분투하는 결혼생활, 자녀양육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차이점으로는 다문화가정 남편들의 다양한 결혼동기, 배우자의 출신국과 인종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시선이었다. 또한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 문화차이(연구참여 3), 나이차이(연구참여 3, 4)를 더 많이 느꼈으며, 부부갈등(연구참여 3, 4)과 가족갈등(연구참여 3)을 더 많이 경험했다.

이상의 분석결과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들이 겪는 결혼생활 경험에는 다문화가정의 특수성과 결혼생활 일반이란 보편성이 공존하였다. 배우자 출신국의 문화적응이란 측면은 결혼이주여성과 동일한 문제이며 처가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점은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이 겪는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성장배경에 따른 자녀양육, 가정폭력 문제나 아내와의 성격 차이 등은 결혼생활에서 겪는 개별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복지가 기존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중심에서 나아가 다음과 같이 부부체계는 물론 가족체계, 친인척을 포함한 확대가족체계, 그리고 지역사회의 개입과 관심 등 다층적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남편을 대상으로 한 이문화 적응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남편들도 의사소통을 비롯해 문화차이에 따른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연구참여 1, 3). 이는 선행연구(김유순 외 2012; 이영희 2010; 정혜영 2008)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둘째, 부부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전술한 대로 다문화가정 남편의 결혼생활 경험은 특수성과 보편성이 공존했다. 배우자의 육

하는 성격이나 의논 없는 물건의 구입(연구참여자 4), 배우자가 한국 어머니들처럼 인내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연구참여자 3), 가정폭력(연구참여자 2, 3) 등은 다문화가정의 특징이 아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는 다문화가정 차원을 넘어 일반적인 부부상당 등 부부체계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과 마찬가지로 남편에게도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내를 대신해 자녀 양육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자가정에서 자라 아버지 역할을 모르거나(연구참여자 2),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체벌이 대물림되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제어가 안 되었다(연구참여자 3). 따라서 부모 역할이 정립되지 않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남편들을 대상으로 부모 역할 교육, 아버지학교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친인척을 포함한 확대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시부모 등 확대가족에게까지 이어졌다(연구참여자 3). 따라서 부부뿐 아니라 원가족까지를 포함한 의사소통과 상호이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중 언어교육, 가족 예절교육, 가족 문화여행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결혼생활의 조력자로서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과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한국인 남편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우리는 다문화가정이 아닙니다”(연구참여자 1)라며 애써 ‘울타리치기’(이영희 2011)를 하였다. 또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확고했지만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고군분투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심리적, 경제적, 자녀 양육 문제 등 복합적인 결혼생활의 욕구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남편모임과 같은 자조그룹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지지원이 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운선·홍기순(2012)도 결혼생활 대처전략으로 국제결혼가정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경상남도 K시에 정

작한 한국인 남편 4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배우자의 출신국이 주로 아시아 국가로 제한되었고 사례 수도 제한적이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연구참여자의 선정으로 사례 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가 한국인 남편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교신: 박정란(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jrpark@inje.ac.kr)

Correspondence: Jung Ran Park(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je University)(jrpark@inje.ac.kr)

2022.01.17 접수, 2022.02.07 심사, 2022.02.23 게재확정

참고문헌

- 공성원, 2016, 다문화가정 남편의 부부갈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향숙, 2013, 다문화가족 남편의 부부갈등대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6, 79-108.
- 김문강, 2010, 다문화가족 한국남성배우자의 피해유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 2009, 국제결혼 남성의 “부부되기”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79-211.
- 김우현, 2010, 다문화가정의 결혼초기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인 남편을 중심으로, 서울 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순 외, 2012,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결혼생활 어려움과 적응전략,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319-378.
- 김인선·배화옥, 2012, 결혼이주여성 한국인 남편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3), 1-21.
- 나정임, 2012, 다문화 가정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북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충래·김정화, 2011, 다문화 사회복지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사회복지학, 63(2), 207-231.
- 박순자, 2013,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해체 경험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재규, 2013, 농촌과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결정요인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5(1), 5-33.
- 법무부, 2013,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개선, <http://www.moj.go.kr>.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 2021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
- 송지현, 2009, 다문화 가정 부부의 결혼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6,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http://www.moqef.go.kr>.
- 여성가족부, 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http://www.moqef.go.kr>.
- 여성가족부, 2021a,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현황, <http://www.moqef.go.kr>.
- 여성가족부, 2021b,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http://www.moqef.go.kr>.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321-349.
- 이근무·김진숙, 2009,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35-162.
- 이영희, 2010, 국제결혼 한국남성의 결혼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희, 2011,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1(2), 39-78.
- 이은정, 2010, 다문화가족 부부의 가족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 2019,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부모화 경험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비교: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호준, 2010, 아시아교육연구, 11(4), 119-143.
- 장은정, 2007, 국제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혜영, 2008,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갈등과정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순옥, 2013, 국제결혼 한국남성들의 결혼해제 피해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운선·홍기순, 2012, 국제결혼 한국인 남성의 결혼생활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6), 53-67.
- 최지영, 2013,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부부갈등 경험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21a,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http://www.kostat.go.kr>.
- 통계청, 2021b,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http://www.kostat.go.kr>.
- 통계청, 2021c, 2020년 혼인·이혼통계, <http://whhttp://www.kostat.go.kr>.

- 통계청, 2021d, 국적 및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http://www.kostat.go.kr>.
- 홍달아기·채옥희, 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TJB 대전방송, 2018.12.26, '황혼을 함께' 노년층 상대 국제결혼 사기피해 조심!
- Ben-David, A. and Y. Lavee, 1994, Migration and marital distress: The case of soviet immigrant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1(3/4), 133-146.
- Creswell, John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 외, 2015, 학지사.
- Yin, Robert K.,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5th ed.), *사례연구방법*, 신경식 외 옮김, 2016, 한경사.

A Study on the Marriage Experience of the Korean Husband of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Case of K City in Gyeongnam

Hee Jung Kim* · Jung Ran Park**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arriage life experience of Korean husband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qualitative case studies. As a result, ‘marriage with different motives’, ‘a wife hard to cope with’, ‘warmth of having a family’, ‘a share I have to bear alone’, ‘a special experience that others do not experience’, ‘a burdensome gaze from others’ total of six central themes were derive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xist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centered on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should be reorganized to provide supports for the marital system reflecting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couples, strengthened education of the family system which helps solving the difficulties of raising children, supports for the extended family system including relatives, and lastly, the intervention and care of the local community as a facilitator in marriage.

Keywords International Marriage, Korean Husband, Marriage Life Experience, Qualitative Case Study

* First author, Inje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ctoral Course, ondeck@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Inje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rofessor, jrpark@inje.ac.kr